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을 위한 융복합 교수-학습 방안 연구

—국어와 도덕 교과의 ‘배려’를 중심으로

고희성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외래강사

† 이 논문은 동악어문학회 2015년 하반기 학술발표대회(2015.11.27.)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서론
- II. 국어과 핵심역량으로서의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
- III.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융복합 교수-학습 방안
- IV. 결론

I. 서론

오늘날 교육은 다양한 분야를 융합해서 다양한 사유 과정을 통해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융합 인재 양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노상우·안동순, 2012: 69). 급변하는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지식과 가치들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 교육을 통해 습득한 기존의 특정 지식과 가치를 계승하는 것에서 나아가 능동적으로 공존하는 다양한 지식과 가치들을 적극 수용하고 생산할 수 있는 주체의 힘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복합적인 소통 채널을 기반으로 공유하고 있는 수많은 지식과 가치들 중에서 주어진 상황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적합한 지식과 가치를 선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사회 변화의 흐름에 따라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변화한다. OECD는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e) 프로젝트를 통해 숙달하고자 하는 직무나 업무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의미하던 ‘역량’의 개념을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의미를 확장시켰다. 21세기 미래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인 ‘핵심역량’으로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소경희, 2007: 2-8).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도 ‘핵심역량’은 키워드가 되었다. 학습자들이 다양한 지

식과 가치가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교사가 주도하는 지식 전달 위주의 기존 교육에서 벗어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 교육의 변화를 꾀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국어교육에서도 국어과에 적합한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의 소통이 활발해진 다문화 사회에서 강조되는 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국어과의 ‘핵심역량’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인간은 긴밀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 놓인 존재로, 사회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원만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발전시키는 가운데 다양한 지식과 가치들을 공유한다.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세대, 성별, 지역, 빈부, 종교’, 나아가 ‘인종, 민족, 언어’ 등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소통이 가능해진 다문화 사회에서는 이러한 소통 능력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소통의 과정에 작동하는 다양성의 범주가 확대된 상황에서 적합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다양한 문화들의 상호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국어교육의 핵심역량인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을 설정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어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교과 간의 융복합 교육을 통해 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설정한 국어교육의 핵심역량인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융복합 교육은 미래의 시민들이 스스로의 역량과 가능성을 최대한 계발하고 발현하여 능동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유연한 교육적 개념이자 실천 양식이기 때문이다(차윤경 외, 2014: 24). 이에 미래 사회 학습자들이 급변하는 다문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인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일련의 교수-학습 실천 양식으로서 융복합 교육의 방안을 도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다문화 사회의 국어교육에 적합한 핵심역량으로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을 검토해 볼 것이다. 그리고 ‘상호문화적 소통 능

력'의 구성 요소 중 '배려의 태도'를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해 볼 것이다. 이때 융복합 교육의 '공유 모형'을 활용하여 '배려'를 중심으로 국어과와 도덕과가 통합된 융복합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해 볼 것이다.

II. 국어과 핵심역량으로서의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

미래 사회 교육은 개별 학문이나 지식 습득보다도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더불어 살 수 있는 기본 능력을 함양하는 데 힘써야 한다(이근호 외, 2013: 54-55). 교육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학습자들이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국어교육에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지금여기의 학습자들에게 강조될 필수 능력으로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복합적인 채널을 통해 수많은 지식과 가치들을 공유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활발히 교류하는 다문화 사회의 학습자들에게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문화들의 상호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문화는 일상적이고 개인적이고 가시적인 것에서부터 역사적이고 사회제도적이고 비가시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소통을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며, 구성원들이 그것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허용하는 만큼 오래 존재한다(Johnson & Johnson, 2002; 김영순 외 역, 2010: 17). 다시 말해 문화는 일정 공동체가 오래도록 집적해 온 전통 문화인 수직적 범주의 문화와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현상적인 수평적 범주의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형성되는 것이다.¹ 이처럼 수직적·수

1 문화는 수직적 시간대에 걸쳐 집적되고 전통화되어 전해지는 수직적 범주와 일상의 현재적 소통 속에서 어떤 의미를 공유하고 언어와 생활의 양식을 공유하는 수평적 범주에 의해 형성된다. 전통 문화인 수직적 범주의 문화는 공동체 내의 상징과 인식에

평적 범주의 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문화는 본질적으로 다문화적 속성을 지니지만 최근 문화의 다양성을 규정하는 요인들이 ‘더 다양’해지고, 그 다양함이 ‘보다 많이 부각’되고 있다(구정화 외, 2010: 16).²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교육에서 강조될 수밖에 없다.

국어교육과 관련해 다문화 사회에서 개인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언급한 김혜숙(2012)은 이병준(2007)이 제시한 다문화 역량³과 Hymes(1974)가 제시한 의사소통 능력을 결합하여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제안하였다. 다문화 사회의 국어교육이 ‘정확하고 적합하게 언어를 조직하는 능력, 상황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등하게 바라볼 줄 아는 능력, 원활한 대인관계를 통해 상대를 배려하는 능력’ 등의 ‘의사소통 능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김혜숙, 2012: 13). 이처럼 문화의 상호성을 이해하고 소통에 참여하는 가운데 소통의 참여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원만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소통의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 다문화 사회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⁴

주지하다시피 ‘의사소통 능력’은 줄곧 국어교육의 주요한 교육의 목표이자 교육의 내용이었다. 언어 사용자인 인간,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알게 모르게 관여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소통 과정에 숨어 있는 코드로서 작용하고 당대적 삶과 관련된 수평적 범주의 문화는 소통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작용한다(박인기, 2000: 26-27).

2 김혜숙(2012: 7-8)은 한국 사회의 ‘지금여기’에서 다문화적 특성이 더욱 관심을 받는 것은 지금까지의 세대, 성별, 지역, 빈부, 종교 등의 다양한 삶의 방식 차이가 아닌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유입에 의한 다문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3 이병준(2007: 5)은 문화적 역량의 하위 역량인 ‘다문화 역량’의 구성 요소로 ‘의사소통능력, 사회적/대인관계 능력, 갈등관리 능력, 공감, 관용, 수용 능력, 문화 간의 차이 인정 능력’을 제안하였다.

4 다양한 문화 속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상호문화를 실행하는 것은 아니다. 상이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종종 일어나는 긴장, 갈등, 몰이해, 당혹스럽게 만드는 뜻밖의 일들로 인한 불편함이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인지하고 행동할 때 상호문화를 실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Gilles Verbunt, 2001; 장한업 역, 2012: 87).

다양한 환경들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국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정확하게 활용하여 상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이끌어 내는 것을 국어교육의 궁극적인 책무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어교육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며 상호작용하는 소통의 과정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교차문화적(cross-cultural) 특성인 ‘상호문화성’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해야 한다(김혜숙, 2012: 14). 다문화 사회의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국어과 핵심역량으로서의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재정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범교과 핵심역량과 국어과 핵심역량에 대한 논의에서 제시되는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⁵

범교과적 차원에서 핵심역량을 추출하여 국가 교육과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논의는 이광우 외(2009)와 이근호 외(2013)가 대표적이다. 핵심역량을 ‘개인적 역량, 사회적 역량, 학습 역량’으로 구분한 이광우 외(2009)는 ‘의사소통 능력’을 ‘사회적 역량’의 요소로 제시하였다. ‘의사소통 능력’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언어와 비언어를 사용해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으로 본 것이다.⁶ 한편 이광우 외(2009)의 논의를 수용하되, 창의·인성적 측면을 강조하여 ‘인성 역량, 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으로 핵심역량을 구분한 이근호 외(2013)는 각 핵심역량 영역의 요소로 ‘의사소통 능력’을 제시하였다.⁷ ‘의사소통 능력’을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5 범교과 및 국어교과에서의 핵심역량에 대한 논의를 살피는 것은 다문화 사회의 국어과 핵심역량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과정으로, 기존 논의에서 제시된 핵심역량의 영역 및 요소의 적절성은 추후 연구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 ‘의사소통 능력’은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언어와 비언어적 형태들을 사용하는 능력, 화자의 뜻을 이해하고 어떤 개념 및 아이디어를 정확한 형태로 나타내는 능력, 사회적 맥락에 알맞게 나타내는 능력이 포함된다(이광우 외, 2008: 302).

7 이근호 외(2013: 120)는 범교과 핵심역량들을 바탕으로 추구하는 교육목표나 인간상에 따라 교과(영역)별로 또는 교육단위별로 적절한 핵심역량 구성 요소들을 조합·연계하여 교과에 적합한 핵심역량을 추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핵심역량은 고정적인 의미를 갖거나 어떤 역량이 다른 역량에 비해 절대적인 견지에서 더 큰 중요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에 맞게 텍스트를 이해·분석·해석·평가·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이근호 외, 2013ㄴ: 56), '인성 역량, 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의 범주에 모두 포함시킨 것이다.⁸

이러한 범교과적 핵심역량 논의와 더불어 국어교육에서의 핵심역량 관련 논의는 서영진 외(2013), 김규훈(2014), 서혁·오은아(2013) 등이 있다.⁹ 서영진 외(2013)와 김규훈(2014)은 기존의 핵심역량 관련 연구를 토대로 국어과에 적합한 핵심역량을, 서혁·오은아(2013)는 스마트 교육 환경으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국어과 핵심역량을 추출하였다.¹⁰

표 1. 국어과 핵심역량의 요소

서영진 외(2013)	김규훈(2014)	서혁·오은아(2013)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	다중담화텍스트 기반 의사소통 역량
문제해결능력	기초학습능력	문화적 소양과 심미적 수용창작 역량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기초학습 역량 및 고등사고 역량
기초학습능력	관계성찰능력	정보처리 역량

8 인성 역량은 '개인 차원이나 개인 자격으로 타인을 만나 발생하는 관계 속에서 필요한 역량', 지적 역량은 '기본 소양 준비를 기초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 속에서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발휘하는 데 필요한 역량', 사회적 역량은 '사회적 소통을 중시하고, 참여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의 위치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말한다(이근호 외, 2013ㄴ: 69).

9 국어교육에서 핵심역량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국어과 핵심역량의 요소를 제한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0 범교과 핵심역량과 교과 핵심역량의 관계는 ① 교과 핵심역량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범교과 핵심역량을 곧 국어과 핵심역량으로 보는 것, ② 범교과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국어과의 특성에 맞게 일부 핵심 역량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국어과 핵심역량으로 다시 선정하는 것, ③ 범교과 핵심역량과 별도로 국어과의 특성을 반영한 핵심역량을 별도로 선정하는 것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가은아, 2014: 53-54). 현재 우리의 교육 체제에서는 두 번째인 범교과 핵심역량으로부터 국어과의 특성에 맞게 핵심역량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 서영진 외(2013), 김규훈(2014), 서혁·오은아(2013) 등도 범교과 핵심역량으로부터 국어과 핵심역량을 도출한 것이다.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환경대응능력	민주시민성과 디지털 윤리 역량
정보처리능력	정보처리능력	
문화예술향유능력	문화향유능력	

국어과 핵심역량의 하나로 서영진 외(2013: 131)은 ‘의사소통 능력’을 ‘음성언어, 문자언어, 다양한 기호를 통한 표현과 이해를 통해 자신과 타인, 세계의 의미와 관계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조정하는 능력’으로 보았다. 그리고 김규훈(2014: 37)은 ‘텍스트를 정확하고 적절하며 유창하게 수용·생산하는 능력’, 서혁·오은아(2013: 22)는 의사소통 역량과 대인관계 역량을 종합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소통 능력’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국어과 핵심역량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범교과 핵심역량의 요소이면서 동시에 국어과 핵심역량의 요소인 ‘의사소통 능력’은 ‘텍스트를 정확하게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 그 이상을 의미한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인간의 삶에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사회문화적 맥락들을 고려하며 언어 및 비언어를 적확하게 사용하여 의미를 획득하고 생산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종합적인 성격을 지닌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 즉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하위요소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은 다양한 지식과 가치를 공유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다문화 사회의 학습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원만한 소통을 위해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함과 동시에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성, 인정, 배려’를 중심에 둔 소통 능력, 즉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은 다문화 사회의 국어교육이 담당해야 하는 핵심역량으로, ‘지식, 기능, 태도’¹¹⁾의 범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¹²⁾

표 2.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범주와 구성 요소

범주	구성 요소
지식	<input type="checkbox"/> 다양한 언어문화에 대한 지식(다양성과 인정) <input type="checkbox"/> 호혜적 문제해결에 대한 지식(인정과 배려)
기능	<input type="checkbox"/> 정확한 언어 사용 능력(다양성과 배려) <input type="checkbox"/> 협력적 관계 형성 능력(인정과 배려)
태도	<input type="checkbox"/> 다양성 존중의 태도(다양성과 인정) <input type="checkbox"/> 배려의 태도(인정과 배려)

첫째,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지식’ 범주에는 ‘다양한 언어문화에 대한 지식’과 ‘호혜적 문제해결에 대한 지식’의 요소가 포함된다. 다문화 사회의 학습자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한 언어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접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서로 다른 언어문화를 차별로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개성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며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서종남, 2010: 135). 이에 ‘다양한 언어문화에 대한 지식’은 ‘다양성과 인정’의 측면에서 언어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기반 지식으로서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사회의 학습자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소통하는 가운데 다양한 문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소통 과정에서의 문제 상황에서 평등한 주체로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소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서 서로 다른 정체성을 지닌 주체들의 대화를 통한 합리적 조정으로 공동의 이해를 만들어 가는 지평 융합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Sitton, 2003; 김원식 역, 2007: 85-114).¹³ 이에 ‘호혜적 문제해

11 ‘핵심역량’은 지식과 기능(skill)과 더불어 태도·감정·가치·동기와 같은 구성 요소들의 결합을 토대로 구축된다(소경희, 2007: 6).
 12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범주 및 구성 요소에 관련된 내용은 고희성(2016: 72-74)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3 하버마스는 무제약적 동화주의와 무제약적 다문화주의를 가로 질러 소통할 수 있는 지평에서 ‘절차적’ 혹은 ‘제약적’ 다문화주의를 지향한다(김영필, 2013: 8).

결에 대한 지식'은 '인정과 배려'의 측면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합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 지식으로서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둘째,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기능' 범주에는 '적확한 언어 사용 능력'과 '협력적 관계 형성 능력'의 요소가 포함된다. 원활한 소통은 정확한 의미 전달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소통의 상대를 배려하는 적절한 표현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¹⁴ 적확하게 언어를 조직하여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함과 동시에 상황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다원화된 사회의 실제 소통의 상황에서 주체들이 역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김혜숙, 2012: 13). 이에 '적확한 언어 사용 능력'은 '다양성과 배려'의 측면에서 다양한 상황 및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배려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언어 사용 능력으로서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사회의 학습자들은 여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따라서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하며 협력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협력적 관계 형성 능력'은 '인정과 배려'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을 인정하고 이들을 배려하며 협력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셋째,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태도' 범주에는 '다양성 존중의 태도'와 '배려의 태도' 요소가 포함된다. 다문화 사회의 학습자들은 다수와 소수가 아닌 '나'와 '너'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타인과 그들의 언어문화를 편견 없이 인정하고 이를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다양한 언어문화를 인정하고 존중

14 이는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어로 이루어지는 이해·표현 활동 및 문법과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품위 있고 개성 있는 국어를 사용하는 것'이란 목표와도 부합한다(교육부, 2015ㄱ: 4).

하는 태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학습자들의 상호 협력적인 소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다양성 존중의 태도’는 ‘다양성과 인정’의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로서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나’와 ‘너’의 만남으로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 가능하다. 수직적·수평적 범주의 문화가 복합적으로 얹혀 있는 망 속에서 형성된 각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 상대를 정의롭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것이다(추병완, 2011: 4). 이에 ‘배려의 태도’는 ‘인정과 배려’의 측면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대우할 수 있는 태도로서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¹⁵

Ⅲ.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융복합 교수-학습 방안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국어과 핵심역량으로서의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은 지금여기, 그리고 미래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학습자들이 길러야 하는 목표 차원의 접근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실제 교수-학습 현장에서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이 구현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하나의 실행 계획인 교수-학습 방안은 교사, 학습자, 교육의 목표와 내용, 교수-학습 환경과 상황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므로 절대적인 것이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서혁, 2005: 241-242). 하지만 학습자들이 앎을 넘어 실제 삶과 연계한 실천성을 담보해야 하는 핵심역량으로서의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 신장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마련하

15 진정한 배려는 배려를 주고받을 때 배려자와 피배려자가 서로의 배려를 느낄 때 완성된다(이명신·권충훈, 2010: 61). 일방적인 배려란 진정한 의미의 배려일 수 없다. 따라서 소수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이든 다수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이든 그 누구에게도 상대에 대한 배려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기 위한 고민은 필요하다.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은 교과 간 통합, 즉 교과 간에 상호 긴밀한 주제나 관련되는 지식 등을 단선적으로 연결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과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나 내용 또는 주제 등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교과 속의 지식이나 내용에 적용하여 보다 더 확장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폭넓은 결과물을 얻어 낼 수 있는 수업을 지향한다(최승현 외, 2011: 140-141).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국어과 핵심역량인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교수-학습을 위해 국어와 도덕 교과를 통합하여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다양한 활동들을 강조하는 융복합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융복합 교육은 학문 또는 교과로 대표되는 각 분야의 경계를 허무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지적 성과를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김선아 외, 2013: 74). 단일 지식 체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다원화된 지식정보화 사회의 학습자들은 이러한 문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분야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유의 능력이 요구된다(손동현, 2008: 231).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분과적 지식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교육을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지식 체계를 기반으로 학습자들이 앎을 넘어 각자 그들의 실제 삶과 연계하여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의 시도가 융복합 교육인 것이다.

이러한 융복합 교육은 미래 사회 학습자들이 급변하는 다문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인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일련의 교수-학습 실천 양식이 될 수 있다. 우리의 학교교육에서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예술’ 등의 교과 간 통합을 지향하는 STEAM 교육의 형태로 융복합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¹⁶ 하지만 융복합 교육은 새로운 시대에 적합

16 STEAM 교육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등을 통합적으로 가르치고자 한 STEM 교육에 ‘미술(Fine Arts), 체육(Physical Arts), 인문사회(Liberal and Social: ‘역사, 철학, 심리학, 사회학), 언어(Language Arts)’에 해당하는 ‘예술(Arts)’ 분야를 포함시킨 것으로 실제 삶의 관련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Georgette Yakman, 2011: 43-45).

한 인재 양성을 위한 유연한 교육적 개념이자 실천 양식으로 제안된 것이기에,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예술’ 등의 교과들 간 통합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국어’ 교과를 중심으로 또다른 교과와의 통합을 실현한 융복합 교수-학습을 통해 다문화 사회의 국어과 핵심역량인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교수-학습도 충분히 유의미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은 공존하는 다양한 지식과 가치들을 이해하고 적확하게 활용하게 있는 능력으로, 이를 위해 다양한 교과들을 통합한 융복합 교수-학습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¹⁷

앞서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지식, 기능, 태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들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소통 능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교수-학습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태도’ 범주에 해당하는 ‘배려의 태도’를 교수-학습하기 위해 ‘국어’와 ‘도덕’ 교과 간의 통합을 실현한 융복합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때의 융복합 교육 형태는 인접 과목들의 학습목표 사이에 공통적인 개념, 기량, 태도 등을 추출하여 교수-학습을 계획하는 ‘공유 모형’을 따를 것이다.¹⁸

17 서은숙(2012: 391-392)은 도덕과 교육에서의 다문화 윤리교육이 다양성 이해를 위한 ‘인문, 사회, 문화·예술 등의 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18 융복합 교육은 통합의 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뉜다. 교과 간의 통합 방식에 따라 통합 및 융복합 교육의 유형을 구분하는 데 주로 통용되는 것은 Drake & Burns(2004)에서 제시한 ‘다학문적 통합, 간학문적 통합, 탈학문적 통합’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보다는 통합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한 Fogarty(2009)의 통합 유형의 하나인 ‘공유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공유 모형’은 전체 교과를 ① 과학 분야(수학, 과학 등), ② 인문사회 분야(언어, 사회, 역사 등), ③ 예체능 분야(미술, 음악, 체육 등), ④ 실용기술 분야(컴퓨터, 기술 등)와 같이 몇 개의 ‘광역 분야’로 나누었을 때, 각 광역 분야 안에서의 인접 과목 간 통합을 이끌어 내어 교수-학습하는 것이다(차윤경 외, 2014: 46-47). 다시 말해 두 개의 교과에서 계획과 교수활동을 함께 하고, 이때 중복되는 개념과 아이디어들이 조직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로 과학과 수학 교사들이 팀 티칭이 될 수 있는 공유된 개념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차트를 만드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김영아, 2015: 124). ‘국어’와 ‘도덕’은 ‘인문사회’라는 광역 분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교과이므로 이들의 통합을 바탕으로 하는 교수-학습에 ‘공유 모형’이 적절한 유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 ‘국어’와 ‘도덕’ 교과 간 통합의 공유 모형의 예¹⁹

교과 1: 국어	공유 요소	교과 2: 도덕
- 듣기·말하기 - [9국01-02]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대화를 나눈다.	배려	- 타인과의 관계 - [9도02-04] 이웃의 종류를 구분해 보고, 공동체 속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봉사하기 위해 타인의 관점을 채택해 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배려의 태도’를 교수-학습하기 위해 ‘배려’를 공유 요소로 하는 국어와 도덕 교과의 [중학교 1-3학년]의 성취 기준을 <표 3>과 같이 추출해 보았다.²⁰

국어과의 ‘듣기·말하기’ 영역의 ‘[9국01-02]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대화를 나눈다.’는 학습자들이 ‘나’와 ‘너’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대화의 상황과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협력하는 가운데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교수-학습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상대를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나’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중요해졌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다양성이 확대되고 부각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감에 따라 배려의 의미역이 함께 확장되었고, 소통의 과정에서 배려 역시 한층 강조되었다. 이에 소통의 과정에 작용하는 ‘배려’가 국어과의 주요 교수-학습 내용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한편 도덕과의 ‘배려’를 핵심 가치로 설정한 ‘타인과의 관계’ 영역

19 ‘공유 모형’의 예는 Fogarty(2009)의 그림을 참고한 차윤경 외(2014: 48)의 표를 수정한 것이다.

20 2015 국어과 교육과정과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영역별 내용 성취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였다.

‘[9도02-04] 이웃의 종류를 구분해 보고, 공동체 속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봉사하기 위해 타인의 관점을 채택해 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학습자의 삶에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타인인 이웃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는 이웃과의 갈등을 도덕적으로 해결하고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세와 태도를 탐색해 보는 교수-학습을 위한 것이다. 과거와 달리 삶에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이웃과의 친밀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경쟁 사회의 구조 속에서 단절이 가속화된 이웃과의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로 하는 윤리가 퇴색되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나’를 중심으로 더 나은 ‘나’를 그려가는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된 것이다. 각종 매체를 통해 이웃의 범위는 넓어진 듯하지만, 오히려 소통의 단절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학습자들에게 이웃, 즉 나와 관계를 맺는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의 윤리가 도덕과의 주요 교수-학습 내용으로 배치된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어과와 도덕과의 통합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으로서의 ‘배려의 태도’ 교수-학습의 실재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이 담화 상황에 따른 ‘배려’의 가치를 탐구하여 그들의 삶 속에서 ‘배려의 태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가치 탐구 학습법’²¹과 ‘역할놀이 학습법’을 결합한 교수-학습법을 활용할 수 있다.²² 예의와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의 말 문화를

21 가치 탐구 학습법은 국어와 도덕 교과에서 두루 활용되는 교수-학습 모형이다. 국어과와 도덕과 모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교수-학습에 참여하여 가치를 명료화하여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가치 탐구 학습법이 동일한 의의를 갖는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어과는 다양한 가치를 접하고 이를 입증하는 근거와 그것의 타당성을 탐구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도덕과는 바람직한 가치의 발견이나 내면화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최미숙 외, 2008: 96). 이번 연구에서는 다양한 담화 상황 따른 ‘배려’의 가치를 탐구하고 이를 내면화하여 실제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국어과와 도덕과의 가치 탐구 학습법의 지향점을 반영하여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2 교수-학습 상황에 따라 한 유형의 교수-학습 모형만을 적용한 단일 모형과 두어 가지 이상의 모형을 융합한 복합 모형 등 교수-학습 모형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최미숙 외, 2008: 105).

통해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상대를 배려하는 소통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실제 담화 상황에 적확하게 활용해 보게 함으로써 ‘배려의 태도’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복합 모형을 적용한 교수-학습 과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²³

표 4. 복합 모형을 적용한 ‘배려’의 교수-학습 과정안

교수-학습 요소		우리 말 문화의 전통과 ‘배려’	교수-학습 모형	가치 탐구 학습, 역할놀이 학습
학습 목표		1. 속담을 통해 우리 말 문화 전통에 나타난 ‘배려’의 가치를 이해한다. 2. 우리 말 문화 전통에 나타난 ‘배려’의 가치를 오늘날의 담화 상황에 활용한다.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 유발 및 학습 문제 확인 하기	■ 말을 통해 상대의 기분을 좋게 했거나 상하게 했던 경험 이야기해 보기 ■ 우리의 말 문화 전통이 담긴 말과 관련된 속담을 사용한 텍스트 읽기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
전개	자료 탐구 하기	■ 말과 관련된 다양한 속담의 의미를 파악하기 - 속담의 의미에서 우리 말 문화의 전통 이해		우리 말 문화의 전통에 나타나는 ‘배려’의 가치를 학습자들이 스스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함
	가치 확인 하기	■ 우리 말 문화 전통에 나타난 ‘배려’ 가치 확인하기 - 상대와의 관계를 고려한 우리 말 문화의 특성 추출		
	가치 평가	■ 모둠별로 오늘날의 담화 상황과 우리 말 문화 전통에 나타난 ‘배려’ 가치		

23 국어교육과 도덕교육 모두 삶과 분리된 고정된 지식과 가치를 교수-학습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학습자와 그들을 둘러싼 삶과 관련된 지식과 가치들을 교수-학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주체적으로 그들의 삶과 연관하여 지식과 가치를 학습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하기	의 적합성 평가하기 - 우리 말 문화에 나타난 ‘배려’의 가치와 오늘날 말 문화에 나타난 ‘배려’의 가치 비교 - 이웃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있는 오늘날의 문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말 문화 전통의 ‘배려’ 가치를 적용한 역할극 준비	
	역할놀이실연하기	■ 모둠별로 오늘날 담화 상황에 적용한 우리 말 문화 전통에 나타난 ‘배려’의 가치를 역할극으로 실연하기	모든 모둠원이 역할극에 참여하도록 지도함
정리	학습내용정리	■ 소통 상황에 따른 ‘배려’의 가치 내면화하기 - 다른 모둠의 역할극을 평가하며, 자신이 이웃과 소통하는 상황에 적용할 ‘배려’의 가치 재구성	

<표 4>의 복합 모형을 적용한 ‘배려의 태도’ 교수-학습 과정의 세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입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의 담화 상황에서 상대 배려와 관련해 성공적이거나 실패한 경험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여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도록 한다. 그리고 예의와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말 문화의 전통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속담을 사용해 대화를 나누는 텍스트를 읽게 함으로써, 소통에 나타나는 ‘배려’의 가치를 탐구하는 학습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전개 단계에서는 ‘가치 탐구 학습법’과 ‘역할놀이 학습법’을 결합하여 담화 소통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가운데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학습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도입 단계에서 읽은 텍스트 속에 제시된 말 관련 속담의 의미를 통해 우리 말 문화의 전통을 파악한 뒤, 상대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말 문화의 특성을 정리하여 소통의 과정에 작동하는 ‘배려’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역할극을 통해 ‘배려’의 가치를 활용해 오늘날 가까운 친구나 이웃과의 소통이 급격히 단절되

고 있는 소통의 문제 상황을 극복하는 상황을 모둠별로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 말 문화의 전통에 나타난 ‘배려’의 가치가 지닌 점검하고 평가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정리 단계에서는 모둠별로 실연한 역할극을 통해 확인한 친구나 이웃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소통의 상황에 따른 ‘배려’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한다.

IV. 결론

현대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소통 채널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활발히 소통하는 가운데 한층 복잡하고 다양해진 지식과 가치들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이는 앞으로 더욱 빠르게 더욱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다. 지금여기의 학습자들은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변화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받는다. 따라서 교육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습자들이 그들의 삶을 성공적인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 부합하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오늘날 교육이 끊임없이 미래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능력인 ‘핵심역량’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변화를 꾀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문화 사회의 국어교육에서도 끊임없이 생산되는 지식과 가치들의 다양함이 부각되고 구성원들 간의 소통의 폭이 한층 촘촘해진 다문화 사회의 학습자들이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문화들의 상호성을 이해하고 존중하여 배려하는 가운데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국어교육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핵심역량으로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을 설정하고, 핵심역량의 실현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국어교육에서 교차문화적 특성인 ‘상호문화성’을 기

반으로 하는 ‘의사소통 능력’의 강조가 필요함을 제시한 김혜숙(2012)의 논의를 토대로, 다문화 사회의 국어과 핵심역량으로서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범교과 핵심역량과 국어과 핵심역량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과 특성을 살피어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개념과 특성을 도출해 보았다.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은 ‘다문화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들을 고려하며 적확하게 언어 및 비언어를 사용하고 이를 통해 의미를 획득하고 생산할 수 있는 소통 능력’으로, ‘지식, 기능, 태도’의 요소가 결합된 종합적 성격을 지닌다. 이에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을 ‘지식, 기능, 태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구성 요소들을 설정해 보았다. ‘지식’의 범주에서는 ‘다양한 언어문화에 대한 지식, 호혜적 문제해결에 대한 지식’, ‘기능’의 범주에서는 ‘적확한 언어 사용 능력, 협력적 관계 형성 능력’, ‘태도’의 범주에서는 ‘다양성 존중의 태도, 배려의 태도’를 각각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로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다문화 사회 국어과의 핵심역량으로 설정한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교수-학습의 실현을 위해 ‘태도’ 범주의 ‘배려의 태도’를 중심으로 융복합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융복합 교육은 미래 사회 학습자들이 급변하는 다문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인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일련의 교수-학습 실천 양식으로서,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함에 있어 다양한 지식과 가치들을 통합하는 융복합 교육이 유의미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융복합 교육의 ‘공유 모형’에 따라 ‘국어’와 ‘도덕’ 교과를 통합하여 융복합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으로서의 ‘배려의 태도’ 교수-학습을 위해 먼저 [중학교 1-3학년]의 국어과의 ‘듣기·말하기’ 영역과 도덕과의 ‘타인과의 관계’ 영역의 성취 기준을 추출하였다. 국어과의 ‘[9국01-02]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대화를 나눈다.’와 도덕과의 ‘[9도02-04] 이웃의 종류를 구분해 보고, 공동체 속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봉사하기 위해 타인의 관점을 채택해 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를

선택하였고, ‘가치 탐구 학습법’과 ‘역할놀이 학습법’을 결합한 복합 모형을 통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했다.

이와 같이 다문화 사회의 국어교육을 통해 소수와 다수의 구분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그들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가운데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제안하기 위해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으로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융복합 교수-학습의 과정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의 요소 중 ‘배려의 태도’에 한하여 융복합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들의 구체적인 융복합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추후 연구를 통해 그 실현 가능성을 한층 보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가은아(2014), 「핵심 역량 기반 국어과 교육과정 구상」, 『작문연구』 20, 한국작문학회, 37-72.
- 고희성(2016), 「상호문화적 문법교육의 내용 구성 연구 —생태학적 인식론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교육부(2015ㄱ), 『국어과 교육과정』.
- 교육부(2015ㄴ), 『도덕과 교육과정』.
- 구정화 외(2010),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동문사.
- 김규훈(2014), 「핵심 역량 기반 문법교육 내용 구성」, 『문법 교육』 22, 한국문법교육학회, 27-61.
- 김선아 외(2013), 「숙의를 통한 융복합 교육과정의 가능성 탐색 —미술과-국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미술교육논총』 27(1), 한국미술교육학회, 71-96.
- 김영아(2015), 「문학 기반 융복합 교육 방안 연구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숙(2012), 「상호문화적 국어교육의 교수-학습 방향 모색」, 『새국어교육』 93, 한국국어교육학회, 5-46.
- 노상우·안동순(2012), 「학문융합관점에서 본 현대교육의 이론적-실천적 변화 모색」, 『교육종합연구』 10(1), 교육종합연구소, 67-88.
- 박인기(2002),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15, 국어교육학회, 23-54.
- 윤현진 외(2007),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설정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 연구(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광우 외(2009),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근호 외(2013ㄱ), 『미래 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근호 외(2013ㄴ), 『미래 핵심역량 계발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명신·권충훈(2010), 「나딩스(Nel Noddings)의 배려교육론 —유아교육과 교사교육을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22, 경상대학교 중등교육연구

소, 59-79.

이병준(2007), 「다문화역량이란 무엇인가?」, 『한국교육사상연구회 학술논문집』 37, 한국교육사상연구회, 1-11.

서영진 외(2013), 『미래 사회 대비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방향 탐색 —국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2006), 『교육학용어사전』, 하우.

서은숙(2012), 「다문화 윤리교육 일고찰」, 『도덕윤리과교육연구』 37,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363-402.

서종남(2010),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서혁(2005), 「국어 교수 학습 변천사」, 『국어교육론 1: 국어 교과 교육론』, 한국문화사, 239-266.

서혁·오은아(2013),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의 핵심역량 기반 국어과 교육과정의 재구성 방향」, 『청람어문교육』 48, 청람어문교육학회, 7-40.

소경희(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competency)’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5(3), 한국교육과정학회, 1-21.

손동현(2008), 「융복합 교육의 수요와 철학교육」, 『철학연구』 83, 철학연구회, 231-261.

차윤경 외(2014), 『융복합교육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최미숙 외(2008),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최승현 외(2011), 『학습자의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 및 교사교육 방안 연구: 중학교 국어, 수학,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추병완(2011), 「V. O. Pang의 배려 중심 다문화교육론」, 『홀리스틱교육연구』 15(1),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 1-19.

Johnson, David W. & Roger T. Johnson (2002). *Mult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lation*. 김영순 외 역(2010), 『다문화교육과 인간관계』, 교육과학사.

Yakman, Georgette (2011). *Introducing Teaching STEAM as a Practical Educational Framework for Korea*. 『STEAM 교육 국제 세미나 및 STEAM 교사 연구회 오리엔테이션』, 한국과학창의재단, 39-76.

Verbunt, Gilles (2001). *LA SOCIETE INTERCULTURELLE*. 장한업 역

- (2012),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상호문화사회』, 교육과학사.
- Sitton, John (2003). *Habermas and Contemporary Society*. 김원식 역
- (2007). 『하버마스와 현대사회』, 동과서.

초록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을 위한 융복합 교수-학습 방안 연구

—국어와 도덕 교과의 ‘배려’를 중심으로

고희성

이 연구는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국어교육의 핵심역량으로 설정한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를 밝히고, 이를 위한 교과 간의 융복합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은 복합적인 채널을 통해 수많은 지식과 가치를 공유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과 활발히 교류하는 다문화 사회의 학습자들이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문화들의 상호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은 국어과의 핵심역량으로서, ‘지식, 기능, 태도’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들의 결합을 토대로 구축된다. 이때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는 ‘지식, 기능 태도’의 범주에 따라 각각 ‘다양한 언어문화에 대한 지식’과 ‘호혜적 문제해결에 대한 지식’, ‘적절한 언어 사용 능력’과 ‘협력적 관계 형성 능력’, ‘다양성 존중의 태도’와 ‘배려의 태도’로 구분된다.

이러한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은 지금여기, 그리고 미래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학습자들이 길러야 하는 목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실천 양식으로서 교과 간 통합을 지향하는 융복합 교육의 교수-학습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어과와 도덕과의 통합을 실현한 ‘공유모형’을 기반으로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 중 ‘배려의 태도’를 위한 융복합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담화 상황에 따른 ‘배려’의 가치를 탐구하여 그들의 삶 속에서 ‘배려의 태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가치 탐구 학습법’과 ‘역할

놀이 학습법'이 결합된 복합 모형을 적용해 '배려'의 교수-학습 과정을 마련한 것이다.

핵심어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 핵심역량, 배려, 융복합 교수-학습, 공유 모형, 다문화 사회

ABSTRACT

A Study on the for Convergence Teaching-Learning Plan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bility

—Focusing on the ‘Caring’ in Korean Language and Moral Subject

Ko Hees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component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bility’ established as key competenc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uited to a multicultural society, and suggest a convergence teaching-learning plan between subjects for the foregoing.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bility’ refers to the ability that learners in multicultural society sharing various knowledge and values and exchanging various cultural backgrounds with members actively through a complex channel understand, respect and communicate reciprocity of various cultures encircling them.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bility’, as key competence of Korean language subject, is constructed based on the combination of components corresponding to ‘knowledge, function and attitude’. Component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bility’ are classified as ‘knowledge of various linguistic cultures’, ‘knowledge of reciprocal problem-solving’, ‘ability to use accurate language’, ‘ability to form a cooperative relation, ‘attitude respecting diversity’ and ‘caring attitude’ according to the categories of ‘knowledge, function and attitud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bility’ corresponds to the objective that learners living here now and will live in the future society should develop, so an effective teaching-learning plan for increa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bility’ should be prepared. For the objective, teaching-learning in convergence education aiming at the integration

between subjects as a practical mode can be actively utilized. Of the component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bility’, this study suggested a convergence teaching-learning plan for ‘caring attitude’ based on the ‘Shared Model’ that realized integration between Korean language and Moral subjects. This means that this study prepared a teaching-learning course for ‘caring’ by applying a complex model that ‘value inquiring learning method’ and ‘role playing learning method’ are integrated for enabling learners to fulfill ‘caring attitude’ in their life by seeking the value of ‘caring’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conversation.

KEYWORD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bility, Key competence, Caring, Convergence teaching-learning, Shared Mode, Multicultural society